

제56년차 지구대회에 참가합시다!
3월 30일(금) 오후 1시, 그랜드하얏트서울

서울무악RC, 첫번째로 회원 94명 전원등록!
이순동 총재, 지구대회 후원성금으로 200만원 쾌척
2월 7일, 지구대회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가져

제56년차를 맞는 3650 지구의 2017-18년도 지구대회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동 총재는 지난 12월부터 지구대회 위원회를 준비를 시작하여 안중원 7지역대표(서울무악RC)를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진욱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지구임원들이 1월과 2월에 수례 회의를 갖고 성공적인 지구대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월 7일(수)에는 3650지구 로타리안홀에서 지구대회 제5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대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특별강연 연사 선정과 공연프로그램, 그리고 3650지구대회만의 자랑인 우정의 집 등 3650지구의 위상에 걸맞는 프로그램 구성하기 위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월 7일에는 서울무악 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 94명의 회원 전원이 우리 지구 76개 클럽 중 첫번째로 지구대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구대회 위원회에서는 3650지구 회원의 60%인 1,200명 이상의 회원과 가족들이 지구대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조록 많은 클럽들이 회원 전원등록을 통해 등록비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구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이순동 총재께서 200만원의 성금을 쾌척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표들과 지구임원들을 중심으로, 지구대회 후원금 모금과 회원사 광고협찬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구대회 참가를 통해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로타리를 즐기고, 로타리의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는 ‘패밀리 투게더 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650지구 패밀리 투게더의 한마음으로 3월 30일(금) 개최되는 제56년차 지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56년차 지구대회위원회 위원장 안중원(서울무악RC)

10차 운영회의 겸 지구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대회조직과 재정, 프로그램과 참석률 제고방안 등 협의

지구운영위원회의 제10차 회의 및 제6차 지구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월) 오전 7시30분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사르도네룸에서 열렸다.

최진욱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운영위 회의에서는 회원증장을 위한 패밀리 투게더 현황과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2월 월례 회의 내용 및 총재 메시지 중 강조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순동 총재는 창원에서 개최된 존9-10A 회원증장 세미나 참석소식을 전하면서 서울하원RC 56명, 서울원효RC 14명 등 일시에 70명이 탈회 처리돼 회원 순증 흐름이 꺾임으로써 2천 명 이하로 떨어졌음을 아쉬워하고, 현재 추진중인 패밀리 투게더 전략을 쟁겨서 회원수를 다시 회복해야겠으며, 재단기부에도 더욱 분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종원 지구대회준비위원장 주재로 지구대회 부위원장 겸 등록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각 지역대표에게 제56년 차 지구대회를 위한 제6차 준비회의를 열고 조직 및 주요 행사 프로그램, 우정의 집 등 제반 준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고 지역별 협조사항에 대한 협의시간을 가졌다. 지구 회원현황 자료와 전년도 지구대회 클럽별 참석표 및 금년도 목표등록률을 놓고 지역별 참가 독려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별히 대형클럽을 중심으로 100% 전원등록클럽을 권장하고 60%이상 등록클럽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행사 팸플릿에 광고를 유치해주어 행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클럽별 후원금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품으로 사용할 회원사 생상품이나 홍보용 기념품 등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동 총재와 이종원 지구트레이너(전 총재), 최진욱 사무총장을 비롯, 이홍수(1지역), 이세진(4지역), 소재선(5지역), 김정균(6지역), 안종원(7지역, 지구대회준비위원장), 송창섭(8지역), 박광호(9지역), 김중(10지역) 지역대표와 김병일 지구재무, 신문영 재정위원장, 신흥래 총재월신편집위원장, 박윤희, 김재철, 최승진 사무부총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후 이순동 총재는 설 명절에 맞추어 정성을 담은 감사선물을 준비해 전제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했다.

